

이슈

2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167호

“BTS 정국이 열애중이라고?”… 거제 휴가사진에 온라인 발칵

17일 새벽 정국 지칭한 휴가사진 떠남
남성이 여성 백허그한 모습 담겨
팬들 “열애다, 아니다” 뜨거운 관심

소속사 “개인 일상 왜곡…열애아냐”
CCTV 영상 유출 등 법적 대응 예고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열애설’에 휩싸이자 소속사 측이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국의 휴가 사진이 공개됐다. 팬들은 “정국 열애 중” 혹은 “정국의 모습이 아니다”며 뜨거운 관심의 시선을 보냈다.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추정되는



BTS 정국

사진에는 한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방탄 정국이 못 알아보고 쫓아낸 친구”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거제에서 가게를 하는데 신분증이 없다고 그냥 보냈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랐다.

이에 일부 팬들은 해당 남성은 정국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래퍼 해쉬스완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SNS에 사실관계를 물었다. 팬들의 끊이지 않는 호기심에 결국 해쉬스완은 “제발 그만하라”고 발끈했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됐다.

이를 지켜본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국은 휴가 기간 거제도 방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투

숍 지인들이 현지 방문 중인 것을 알게 됐다”며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로 노래방에 갔다. 소소한 개인적 일상이 왜곡돼 알려져 유감이다”고 해명했다.

이는 지난해 또 다른 멤버 슈가가 가수 수란과 열애설에 휘말렸을 당시 “사실이 아니다”고만 해명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소속사 측은 정국과 관련해 CCTV 유출 및 불법촬영 여부 등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국을 포함해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한 만큼 멤버들의 열애설이 미칠 파장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정현 기자 annjoy@donga.com

9월 셋째 주 골프계 ‘황금 주말’

개최일	대회명매치	주요 출전선수
19~22일	신한동해오픈	노승열, 최경주, 양용은
19~22일	올포유·레노마 챔피언십	최혜진, 이소영, 조정민
21~22일	설해원 레전드 매치	박세리, 박성현, 소렌스탐

박세리 복귀전 볼까 노승열을 보러 갈까

골프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이번 주말 행복한 고민에 빠질 듯하다. 초특급 스타 플레이어들이 펼치는 필드 위의 향연이 3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박세리의 필드 복귀전과 노승열의 전역 신고식, 최혜진의 독주 레이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골프팬들을 맛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우선 ‘골프 여왕’의 일일 현역 복귀전으로 관심을 끄는 설해원 레전드 매치가 21일과 22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열린다. 2016년 은퇴한 박세리를 비롯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안니카 소렌스탐과 로레나 오초아, 줄리 잉스터가 박성현과 렉시 톰슨, 아리아 쥘타누간, 이민지와 함께 정든 필드로 돌아온다.

레전드들의 의기투합으로 성사된 이번 무대의 백미는 역시 21일 예정된 박세리의 포석 경기다. 은퇴 후 클럽을 일절 잡지 않았던 박세리는 설해원 레전드 매치를 위해 최근 몇 달간 연습장과 필드를 오가며 꾸준히 몸을 만들었다. 골프 여왕으로서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 현역시절 못지않게 연습을 했다는 후문이다.

2014년 한국인 통산 4번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던 노승열도 군복을 벗고 팬들과 만난다. 2017년 11월 입대 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노승열은 19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신한동해오픈을 통해 복귀전을 치른다.

2년만의 공식경기에서 만날 상대는 만만치가 않다. 최경주와 양용은 등 베테랑들과 박성현, 김경태 등 국내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우승을 놓고 겨룬다.

추석 연휴를 맞아 모처럼 휴식을 취했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도 1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올포유·레노마 챔피언십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다. 경기도 이천시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최혜진의 5승 도전으로 주목을 끈다. 4승을 달성했던 6월 맥클·윙퍼 리조트 오픈 이후 우승이 없는 최혜진은 디펜딩 챔피언 이소영을 비롯해 조정민, 박재윤과 샷 대결을 펼친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사상 첫 300공격포인트 눈앞…전북 베테랑 이동국의 ‘식지 않는 축구열정’

“찾아진 긴급출동…새로운 축구가 즐겁다”

스코어 1-1로 팽팽하던 후반 37분, 문전 혼전 중 볼이 흘러나오자 베테랑이 달려들었다. 번뜩인 오른발 킥, 전광판에 2-1 홈 팀의 리드를 새긴 그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크게 벌린 뒤 천천히 그라운드를 질주했다. 이동국(40)이 K리그1 전북 현대의 본격적인 가을 스토리를 열어줬다. 이날 경기에 앞서 경남FC와 혈전 끝에 3-3으로 비긴 2위 울산 현대가 주춤한 틈을 전북은 놓치지 않았다. 추석 연휴에도 1만5700여 명의 팬들이 녹색물결을 이룬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은 상주 상무를 격파하며 울산과 격차를 한 경기로 벌렸다. 뒤늦은 한가위 휴가를 보내던 중 스포츠동아와 연락이 닿은 이동국은 “경기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봤는데, 내가 평소보다 훨씬 기뻐하더라”며 미소 띤 얼굴을 터트린 뒤 “늘 새로운 축구를 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걸 배우고 또 채우고 있다. 뜨거운 함성을 토해내는 팬들을 보면 나태해질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두자릿수 득점은 현역 내내 했으면
기왕이면 골로 300 고지 달성 욕심
선 굵은 축구서 빌드업…기조 변화
흐름 바꾸는 조커 역 서운하지 않아
밀집수비 벗겨내며 내 실력도 진화



●가치를 증명한 베테랑

“킥오프를 앞두고 몸을 풀기 위해 잔디를 밟을 때부터 소름이 돋았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렸고 신명나게 보였다. 특별한 날, 특별한 만남에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현장에 가족도 있었다. 한 건 했으면 했는데 지쳤다. (세리머니를 하며) 얼마나 기뻐하던지 표정에서 보였다. 확실히 몽글했다.”

이동국이 이전에 마지막 골 맛을 본 시점은 7월 14일이었다. 그런데 이후 긴 침묵이 이어졌다. 6경기에 투입됐지만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상주전은 무조건 승점 3을 얻고 싶었다. 결전을 앞두고 울산이 경남과 비겼다든 소식은 접한 터라 간절함은 훨씬 컸다. 후반 27분 최보경을 대신해 교체 투입된 이동국은 값진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정확히 두 번 슛을 시도했고 이 중 한 골을 만들었다.

●두 자릿수 포인트는 계속

“무조건 우승이 목표다. 개인적으로 두 자릿수 득점은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 200골, 300골과는 다른 의미다. 전북 유니폼을 입고 매 시즌 그렇게 해왔다.”

이동국의 올 시즌 포부다. 25경기에서 7골·2도움을 기록 중인 그는 1998년 포항 스틸러스 입단과 함께 프로에 데뷔한 뒤

공격 포인트 299개(222골·77도움)를 달성했다. 득점이든, 어시스트든 한 개만 추가하면 300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된다.

기왕이면 득점과 함께 ‘300’ 고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주전 결승포도 집념으로 만들었다. 지난 주 훈련에서 허벅지 뒷근육이 올라와 출전이 불투명했다.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려 했는데,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이 “뛰어줬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딱 하루 정상 훈련을 하고 결전에 임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이뤄진 셈이다.

●배움의 아이콘으로

“정말 특별한 시즌이다. 이전과 많이 다른 축구를 접하고 있다. 계속 배우고 있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배움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더욱 강렬하다. 언제까지 뛸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은 시간, 내 모든 걸 쏟아내고 싶다.”

‘절대 왕조’를 구축한 전북은 최강희 감독(상하이 선화)이 떠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변화가 불가피했다. 선 굵은 축구가 빌드업 기조로 변했다. 이동국도 예외가 아니다. 후반 15~20분 교체 투입이 정형화된 과거와 달리 그의 출전시간은 전혀 종잡을 수 없다. 심지어 후반 추가시간 직전에 투입된 적도 있었다.

2~3골 차로 리드할 때도 출전기회를 잡아 추가골을 노리던 이동국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경기를 뛴다. 비기거나 지고 있을 때 흐름을 바꾸는 긴급 카드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다. 전북의 공세를 막아내려는 상대의 밀집수비를 벗겨내며 찬스를 만들다보니 실력도 쌓인다. 배움에서 얻는 쾌감이다. ‘라이언 킹’은 여전히 진화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전북 현대의 이동국은 골을 넣고 경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전임 최강희 감독 때보다 출전 기회는 줄고 들쭉날쭉하지만 여전히 그는 K리그1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수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